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새벽 2시 즈음이었기에 양방향 모두 통행 차량이 극도로 적은 시간이었다.

네 명의 승격을 태운 국산 모하비 한 대가 시속 100km를 조금 못 미친 속도로 막 흥천이포 인터체인지를 지나는 중이었다.

차량을 운전하던 박태영은 백미러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거..., 왜 저래?”

조수석에 탄 이중호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뭐가?”

“뒤차 말이야, 너무 가까이 붙는데?”

박태영의 대답에 이중호가 고개를 돌려 후방을 바라보았다.

박태영의 말대로 대형 탑차 한 대가 후미에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었다. 차가 막히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지만 지금은 새벽 2시, 앞쪽 차량의 후미등이 까마득히 보일 정도로 통행량이 적었다. 굳이 이렇게 바짝 붙어 진행할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다.

“졸린가 보지 뭐.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빠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야간 고속도로처럼 반복된 풍경 속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졸리기 마련이다.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앞 차를 바짝 따라붙거나 무리한 추월을 하며 졸음을 쫓기도 한다. 스스로 긴장감을 돋우기 위한 행동이다.

이중호가 귀찮다는 듯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핸드폰에는 문자창이 떠올라 있었다.

‘소주 한 잔 할까?’

몇 년 전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에 이중호는 답신하지 않았다.

저장된 이름은 이우진.

가장 친했던 친구였고, 배신자였다.

뭔가 메시지를 적었다 지웠다 반복하던 이중호가 결국 핸드폰을 꺼버렸다.

이 시간에 문자를 남기는 것도 그랬고, 먼저 연락하기도 싫었다.

남한강 다리 위로 접어들 즈음 박태영이 불안했던지 속도를 살짝 올렸다. 그러자 이중호가 와락 인상을 썼다.

“씨발아, 정속 주행! 카메라에 찍히면 안 된다니까!”

속도위반 딱지를 걱정하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었다.

“아, 미안....”

박태영이 곧바로 속도를 줄였다.

“조심하라고.”

그 순간,

탑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모하비 후미를 박을 듯 근접했고, 울림이 큰 스팀혼 경적이 밤공기를 찢었다.

빠아아아앙-

고요한 새벽 2시, 극도로 근접한 거리에서 터져 나온 고 음량 스팀혼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컸다.

모하비에 탑승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젖된 게 아닌가, 착각했을 정도.

모하비가 대형 SUV이긴 했으나, 고속도로의 무법자인 대형 트럭에 비빌 바는 아니었다. 더구나 다리를 건너고 있는 상황.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철렁인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또한 그 철렁임 만큼 화가 났다.

“저 씨발놈이 뒤질라고?”

박태영이 욕설을 내뿔었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덩치가 뒤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린 채 화를 냈다.

“형, 차 세워! 죽여 불라니까.”

“그래, 씨발! 일이고 지랄이고 저런 놈은 참교육을....”

“shit!”

이중호가 박태영의 말을 끊고 왼쪽 뒷자리를 눈썰었다.

그 자리에 앉아 코를 골고 있는 남자.

“안돼! 그냥 가. 눈에 띄는 짓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씨발!”

잠든 남자 옆에 앉은 덩치가 불만스럽다는 듯 몸을 획 돌려 자세를 바로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탑차도 놀랐는지 거리를 벌렸다는 것.

다리를 건너자 대신인터체인지까지는 금방이었다.

천천히 출구 차선으로 붙는 모하비.

그런데 탑차도 이쪽에서 빠져야 했던 모양인지 모하비를 따라 차선을 변경했다.

“깜빡이라도 넣든지!”

탑차가 굳이 뒤로 붙은 이유를 짐작했는지 박태영이 투덜거렸다.

미행이나 추적의 가능성을 고려하진 않았다. 어떤 병신이 저런 초대형차를 몰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온 모하비는 북쪽 바이산으로 방향을 잡았다.

탑차도 여전히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쯤 되면 고개를 가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쪽은 달리 빠질 길도 없는 외길이었기에 억지로 이해하고 말았다. 그저 우연이길 바라면서.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민가 없이 밭과 산으로만 이어지는 시골길.

그나마 차가 있었던 고속도로와 달리 이 길은 마주 오는 차조차 없었다.

왠지 오싹해지는 분위기.

박태영이 신경이 쓰인다는 듯 자꾸 뒤를 힐끔거렸다.

“저 젖 같은 새끼가?”

잠시 거리를 벌렸던 탭차가 다시 바짝 붙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형차라서인지 헤드라이트 불빛이 유난히 강했다. 고속도로처럼 위협적인 속도는 아니지만, 무척 거슬렸다.

“운전 습관 한번 더럽게 들었네....”

애써 운전 습관 탓을 하지만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운전대를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몰랐고.

속도를 조금 높였다. 이번엔 이중호도 딱히 뭐라 하진 않았다.

큰 차가 속도를 높이기 힘든 구불구불 이어진 시골길, 탭차와의 거리가 점차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느낀 순간,

부우웅-

요란한 엔진음과 함께 탭차가 속도를 높여 따라붙기 시작했다.

“뭘 잘 못 처먹었나? 왜 저래, 저 새끼?”

험하게 살아온 이들이라 어지간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이런 무식한 위협 앞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야트막한 산굽이를 돌아가는 중,

빠아아앙-

후미에 바짝 따라붙은 탑차가 또 다시 경적을 울렸다. 한밤중 정적을 깨는 요란한 소리에 박태영은 아까 전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올라왔다.

“아악, 저 미친놈이?”

그 순간 이중호가 외쳤다.

“씨발, 밟아!”

뭔가 잘못됐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걸 증명하듯 탑차의 헤드라이트가 상시등으로 바뀌었다.

시신경을 마비시킬 듯 쏟아져 들어오는 고광량 HID 광원.

애써 우연이라 치부했던 것들이 필연처럼 느껴진 순간, 위험을 느낀 박태영이가 거칠게 악셀을 밟았다.

350마력 풀 토크가 올라오며 튕기듯 달려 나가는 모하비.

속도를 높여 막 산굽이를 돌아가는 순간,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했다. 그동안 지나치는 차가 한 대도 없었기에 중앙선을 밟고 있던 순간이었다.

이쪽이 차선을 이탈했음을 알리려는 듯 상대 차량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상시등을 번쩍였다.

그 차의 상시등도 결코 평범한 광량이 아니었다. 플래시를 터트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

‘씨발!’

앞과 뒤에서 동시에 사이키 조명처럼 쏟아져 들어온 빛이 박태영의 시야를 갓아갔다. 그에 더해 귀를 먹먹하게 하는 경적 소리.

박태영은는 다급히 핸들을 틀며 브레이크를 나눠 밟았다. 그 와중에도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건 그가 꽤 숙련된 운전자라는 증거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길을 알지 못했다.

익숙하지 않은 길, 얼마나 굽은 길인지 알지 못했고, 또 얼마나 좁은지, 도로 밖 지형이 어떤지 알지 못했다.

덜컹-

뭔가 바퀴에 걸렸음을 인식한 순간 차가 기우뚱 떠올랐다.

박태영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젖됐다!'

불운하게도 산굽이는 경사까지 가팔랐다.

도로변 경계석을 밟고 떠오른 모하비가 빙그르르 회전하면서 비탈 아래로 날았다.

광!

과과광-

30여 미터, 몇 그루의 나무를 잇달아 부러뜨리며 구르던 모하비가 굽은 나무에 걸려 쿵 하고 멈췄다.

여기저기 잔뜩 찌그러져 있었지만, 워낙 튼튼한 차량인지라 최소한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보닛 안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조금 불안해 보일 뿐.

마주 오던 칸 차량과 탑차가 산굽이 위, 도로에 나란히 정차했다.

탑차의 운전자가 내리고 칸에서도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느긋한 걸음걸이.

사고를 목격한, 혹은 유발한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로웠다.

칸에서 내린 남자 둘이 탑차의 운전자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보였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러자 탑차의 운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젊은 남자 하나가 라이터를 들이밀자 탑차의 운전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조금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마치 일행이라도 되는 양 나란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모하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조금씩 짙어 지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탑차의 운전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죽진 않았겠죠?”

탑차 운전자가 어깨를 으쓱여 보이며 대답했다.

“모르지. 죽었어도 할 수 없고. 터질 수도 있겠네. 어서 가봐.”

두 남자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탑차의 운전자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쭈욱 타 들어 가는 담배 불빛, 몽글, 뿜어지는 연기가 남자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었다.

한두 번 했던 일이 아닌데, 이우진은 오늘 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운전 내내 그랬다.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상대가 구린 일을 하는 놈들이라 알아서 조심해 주는 바람에 사실상 이쪽에서 손 댈 일이 거의 없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칩도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카메라도 알아서 피했다. 접촉도 없었기에 페인트 조각 하나 남길 일이 없었다.

아무리 돌이켜 봐도 작은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다.

사실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상관없었다. 회사에서 알아서 지워버릴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뜨끔!

손에서 느껴진 열기에 바라보니 어느새 담배가 콩초까지 타 들어가 있었다.

손가락을 튕겨 불뚱을 털어내고 발로 비벼 흔적을 지웠다. 냄새 나는 콩초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내려갔던 두 남자가 누군가를 들쳐 메고 나타났다.

젊은 남자의 어깨 위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남자, 구포 시장의 보좌관 박철진이었다.

박철진의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마가 깨져 피가 낭자했고, 늘어진 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덜렁거렸다.

저렇게 막 움직여서는 안 될 상태지만, 자살 당하지 않은 것만해도 어딘가?

젊은 남자가 이우진을 향해 말했다.

“머리가 깨진 걸 보니 죽진 않을 것 같네요.”

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투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뉘앙스를 질게 풍기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죽어도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하긴, 그런 걸 고려했다면 이렇게 위험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겠지.

박철진의 상태를 확인한 이우진이 물었다.

“나머진?”

“한 놈이 깨어 있었는데, 재웠습니다. 나머지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요.”

젊은 남자가 점퍼를 들춰 고무망치를 슬쩍 보여주었다.

이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처리했군.”

놈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다. 각오도 없이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작업은?”

“휴발유를 조금 뿌려 뒀습니다. 이미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우진이 탑차를 향해 고갯짓했다.

“실어.”

“넵!”

다른 남자가 잽싸게 달려가 탑차의 화물칸을 개방하고 그 위로 뛰어올랐다. 움직임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 모습을 보고 이우진이 턱을 주먹거렸다.

한때 자신도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리자 문득 이중호가 생각났다.

학창 시절은 물론 방황하던 때까지 함께했던 단짝 친구.

가는 길이 달라 몇 년간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이 불안할 때면 늘 떠오르는 친구였다.

똑똑한 놈인데, 이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구만.

내일은 오랜만에 녀석에게 연락이나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박철진을 실은 화물칸은 이런저런 장비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각종 모니터와 시스템, 구급차에서 볼 법한 의료용 침대와 간이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쪽에 설치된 고로처럼 생긴 장치가 왠지 섬뜩함을 자아냈다.

박철진을 이동식 침대에 고정하고 내려온 남자가 이우진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통제팀 철수하게 우리도 얼른 뜨지.”

“넵, 출발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떠난 직후 비탈 아래에서 쿵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았다.

그 불빛이 이우진의 옆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완벽한 마무리,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불타는 차량을 잠시 바라보던 이 우진은 느릿느릿 탑차에 올라 핸드폰을 조작했다.

핸드폰에는 문자창이 하나 떠 있었다.

‘소주 한 잔 할까?’

자신이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였다.

기분이 풀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번엔 연락을 좀 받아줬으면 좋으련만.